

## TIPLONews 한국어본

2019 년 12 월호(K244)

**K191106Y1**

**K191105Y1**

### 01 대만 특허 출원중 반도체영역이 수위를 차지

경제부 통계처는 2019 년 11 월 5 일 신문발표를 통하여, 대만 발명특허 출원건수가 3 년 연속 성장하였고, 그중 외국인 출원건수가 대다수로 점유율을 60%를 넘었으며, 대만인 출원건수는 40%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2019 년 1-9 월 특허를 출원한 외국인 국적을 보면 일본이 가장 많아 28%를 점유하였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약 13%를 점유하였으나,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대륙이 3 위지만 그 점유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발명특허 출원 접수 건수는 '반도체' '연산과학기술' 분야가 가장 많아 2018 년 신청건수는 4 천건을 넘었고 총 출원 건수 가운데 각 영역별 점유율은 11.1%와 9.8%를 차지했다.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부분은 6.5%로 3 위를 차지했으며, 이 분야는 대만제조업이 우세한 영역이다.

대만에 특허출원을 국가별로 분석하여 보면, 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3 대 기술영역의 순서는 "연산처리기술", "반도체" 및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이었고; 외국인 출원 가운데, 일본 및 한국이 대만에서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영역은 "반도체"였으며, 미국은 "디지털 통신", "반도체", 중국대륙은 "연산처리기술"이 가장 많았다.

한편,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접수한 발명특허출원 통계에 의하면, 각국 특허 영역별 구성 및 연구발전방향을 엿볼 수 있다.

2018 년 전세계 WIPO 발명특허 출원량의 3 대 주요 기술영역은 "디지털 통신", "연산기술" 및 "전자기계 에너지장치"이었고 대만이 수위를 차지한

“반도체”영역은 WIPO 통계에 의하면 제 10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출원인과 WIPO의 특허영역 분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별출원을 관찰해 보면, 2019년 미국(22.2%점유), 중국대륙(21.1%점유), 일본(19.6% 점유)의 순서였고, 그중 미국은 “연산기술”, “의료기술” 및 “디지털통신”을 위주였고, 중국대륙은 “디지털통신”, “연산기술” 및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의 순서였고, 일본은 “전자기계 에너지 장치”, “운송” 및 “연산기계” 순이었으며, 미, 중, 일 3국 모두 “연산기술”영역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디지털 통신”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대륙과 한국이었다. (2019.11)

## K191128Y2

### 02 「대안」<sup>1)</sup>상표 분쟁, 6성급 건강관리 클리닉<sup>2)</sup>패소

6성급 호텔 설비제공을 표방한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 (원래 명칭은 “대안(臺安)101 클리닉”)은 상표침해논란으로, 대만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의료재단법인 (약칭, “대안(臺安)병원”)<sup>3)</sup> 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지재법원<sup>4)</sup>은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여,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은 패소하였고, 본안은 상소할 수 있다.

대안(臺安)병원은 주장하길, 자신들은 1954년 창립후 1986년 “대안(臺安)병원”으로 개명하였고, 대안(臺安)이란 상표를 이미 33년이상 사용하였는데, 2003년에 또한 상표 등록한 바 있다. 그런데 대안(臺安)101 건강관리클리닉이 자신들의 이름과 인터넷에서 대안(臺安)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명함상의 로고에 또한 대안(臺安)병원의 로고와 유사하였고, 심지어는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대안(臺安)병원의 계열사로, 견적서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의료재단법인 대안(臺安)101 건강관리 클리닉”이라고 적어서, 명백히 그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권익과 대안(臺安)병원의 명성에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측은 곧바로 권리침해를 부인하였고, 대안(臺安) 상표는 대안(臺安)병원의 원장이 그 사용에 동의하였음을

강조하였고, 협력기회를 통하여 상표권리금을 지불하였고, 클리닉 개막시에는 대안(臺安)병원 원장 그리고 부원장이 각 부문 주관을 인솔하여 개막식에 와서 축하를 해주었기에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재법원은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은 비록 “대안(臺安)101 진단소”의 대안(臺安) 상표가 대안(臺安)병원 원장의 동의하에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병원장은 부인하였고, 병원장 또한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을 대표하여 동의를 해주거나 상표사용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안병원은 2019년 3월 이미 우편으로 클리닉에 통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신의(信義)101 건강관리클리닉은 스스로 선의사용을 주장을 해서는 안되고, 비록 이미 클리닉의 이름을 변경하였지만, 이후 다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유사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안(臺安)과 같거나 유사한 글자 및 상표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 2019.11 )

역주:

- 1) 중국어 상표 “臺安”을 지칭.
- 2) 중국어명은 信義 101 健康管理診所 (영문명, Xin-Yi 101 Health Manage Center). 문제가 있었을 당시, 원명칭은 “臺安 101 診所”
- 3) 중국어명은 復臨安息日會醫療財團法人 ( 약칭, 臺安醫院 )
- 4) 대만 지혜재산법원. 한국 특허법원 상당

## K191105Y2

### 03 Ferrari<sup>1)</sup> 본사 대만 자전거 업체 상표권 침해 고소, 자전거업체 패소

Aster<sup>2)</sup>는 2016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Ferrari와 합작하였다고 발표하고 대만달러(NTD) 28.8만원짜리 자전거 신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양당사자는 합작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저명한 상표 Ferrari의 이탈리아 본사는 직접 대만 Aster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재법원은 심리후, Aster 에 Aster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세일에 Ferrari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와, Aster 의 책임자는 대만달러(NTD) 100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안 상소가능.

Aster 는 공식 웹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전거 품질과 전문성이 국제적인 브랜드인 Lamborghini 와 Ferrari 에 의해 인정받고 인증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두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로서 AF7 자전거에 Ferrari 이름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Ferrari 는 Aster 와의 합작관계를 부인하였다.

Ferrari 는 Aster 가 이전 홍콩의 협력업체를 통해 알선을 하려한 적이 있으나, Ferrari 는 홍콩업체에 제 3 자에게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었다. Ferrari 는 Aster 의 상표권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쌍방은 여하한 법률적인 합작관계를 체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Aster 는 여전히 Ferrari 회사상표와 도안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생산하고 게다가 정식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대외에 발표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Aster 는 판매하는 자전거들에 Ferrari 의 위조방지 라벨을 붙이고 있고 위조방지라벨은 권리금을 주고 취득한 합법적인 것이기에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조방지 라벨을 판매하는 업체나 Ferrari 가 승인한 홍콩업체 모두 Aster 가 승인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부품상태일 때만이라고 했다. 달리말해, Aster 가 상품판매시 반드시 부품상태이어야 하고, 다른 부품과 함께 조립된 완제품 상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재법원은 Aster 가 비록 Ferrari 의 위조방지 라벨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지만, 해당 라벨의 사용범위가 「프레임 세트」로 제한되어있고, 조립이 다 된「완제품 자전거」는 사용범위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Aster 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할 때 Ferrari 에게 정식으로 권리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Ferrari 와 관계가 있는 것은

단지 프레임세트만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에 확실히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Aster 의 패소를 판결했다.  
( 2019.11 )

역주:

- 1) 이탈리아 회사 FERRARI S.P.A. 지칭.
- 2) 중국어명 亞仕大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Aster Bikes

**TIPLO**  
Attorneys-at-Law